

## 아리타 도자 미술관

아리타 도자 미술관은 1954년에 사가현 최초의 박물관으로 개관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에 3곳밖에 없는 도자기 전문 박물관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 자체는 1874년에 지어져 자기 창고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이 미술관의 소장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가 1830년대~1850년대에 만들어진 남색과 흰색의 청화백자(일본에서는 소메쓰케(染付)라고 함) 대형 접시입니다. 이 대형 접시에는 이즈미야마 자석장에서 이루어진 도석을 채굴하는 모습과 분쇄, 성형, 그림 작업, 시유, 소성 등 에도 시대(1603~1868) 아리타 도자기의 우와에쓰케(*overglaze decoration*, 상회칠) 작업 이전까지의 전 생산 공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그림을 그린 접시는 세계에서 3장밖에 없는 접시 중 1장으로 추정되며 사가현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세계 박람회에서 전시되거나 해외에 수출된 자기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작품의 특징인 우와에(*overglaze enamel painting*, 상회)와 긴란데(자기 문양에 금색을 다용한 기법) 디자인은 독일의 마이센 자기를 비롯한 유럽의 도자기 제조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화로우면서 다채로운 디자인은 서구 상류층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1872년 빈, 1876년 필라델피아, 1878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는 아리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장식과 정교한 조형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